

12/28(월) 사사기 묵상 34

사사기 10:1-5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소사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사사는 6명(웃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소사사는 6명(삼갈, 돌라, 엘론, 야일, 입산, 압돈)이었습니다. 소사사는 대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지만 그들이 통치한 기록과 역사는 조금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사사 돌라

사사 돌라에 대한 소개가 사 10: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하면서”**). 사사 돌라는 잇사갈 지파의 출신으로 성경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 돌라와 그의 아버지 부아의 행적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창 46:13절에 보면 그들과 같은 이름이 나타납니다(**“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야곱의 아들인 잇사갈의 자식들과 이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풍습을 보여 줍니다. 즉, 잇사갈 지파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 안에도 이러한 풍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신중합니다. 그들이 선조의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 줬다는 것은 선조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돌라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가 어떤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석가들은 아마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거나 이방의 작은 침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돌라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했다(1절)”**는 것입니다. 잇사갈 사람이었던 돌라가 왜 사밧 지역에 가서 거주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전 사사인 기드온 처럼 돌라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다스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적은 사사 기드온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기드온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오브라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겜에서도 다스리며 그곳에 자신의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돌라는 사사가 된 지 이십삼년 만에 죽어 사밧에 장사되었습니다(2절). 성경은 사사들과 그 외 인물들의 모든 사건과 기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와 관계되거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경에 남겠지만 사사로운 개인의 역사는 모두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 돌라는 이십삼년을 사사로서 활동했지만 그의 생애동안 중요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사 야일

사사 야일에 대한 소개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세 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서 그는 이십이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돌라와는 달리 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4절,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런데 돌라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왕과 같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들들마다 개인 사유지를 모두 얻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사사 기드온은 훌륭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사였지만 그의 세속적인 사생활과 말년의 부패는 이후 사사들에게 있어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사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전례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 하듯이 자녀들의 신앙 생활은 부모들의 믿음과 올바른 신앙 생활이 지탱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델과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에 있어서도 좋은 신앙의 롤모델과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게을렀던 것들 그리고 부족했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세워주고 지지해 주는 신앙의 롤모델과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벧후 1:8, 10,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도제목

1. 나의 부족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영적으로 더 부지런하고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봉춘<몽골>, 김홍기<T 국>, 나요엘<중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